국내 현대무용의 관객참여형 무용프로그램 탐색

Analysis of Trends in Participating Dance Program

김 이 경 , 이 재 정
숙명여자대학교

Kim lee-kyung*, Lee jae- 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무엇인가를 느껴보고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깊이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무용공연을 관람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이다. 특히 현대무용은 그 내용의 전달에 있어 난해성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대무용 참여형 무용현장 3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방법, 대상, 중점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적용 방법 면에서 작품체험형, 즉흥참여형, 만남형의 방법이, 장기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단기적, 단발성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둘째, 대상 면에서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기 보다는 가르치는 사람, 작품 등의 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셋째, 주로 무용 실기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예술영역의 통합프로그램개발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객참여형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해본 것은 이해한다.'라는 공자의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느껴보고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깊이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은 예술활동을 이해하고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감정적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객활성화 전략이다. 특히 무용의 여러 분야 중 현대무용은 '난해함'이라는 큰 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관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참여형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지현(2013), 임규혁외 5인(2010) 등의연구를 통해 우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포괄적인 문화예술분야의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용분야에서도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발전 있는 무용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대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객참여형 무용교육프로그램을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20년이상 무용활동을 한 전문가 7명에게 추천을 받은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언급된 3개의 단체를 선택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문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대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 된 국립현대무용단, 서울국제즉흥춤축제, 모다페(MODAFE)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인 참여형 무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무용도전, 춤추는 인문학, 무용학교라는 명칭으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 중 '무용도전'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다락토요프로그램활동으로, '춤추는 인문학'은 문화가있는 날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고 있었고, '무용학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현대무용'이라는 주제로 현대무용 10주 과정에 쇼케이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 올해로 17회를 맞은 국제 즉흥공연프로젝트로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에서 주최한다. 세계 유수의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이 한국에서 오픈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비전공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관객과 함께하는 즉흥파티'가 기획되어 있었다. 모다페(MODAFE)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에서 주최하는 현대무용페스트발로 올해로 35회가 되는 역사가 깊은 현대무용축제이다. 관객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비전공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대화', '모다페 포토존'으로 공연 후 좋아하는 안무가와 무용수와 사진을 찍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Ⅲ. 결론

관객참여형 무용프로그램을 적용방법, 대상,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가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로그램 적용 방법적 측면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체험형, 즉흥적으로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파티형식의 즉흥참여형, 작품의 안무가와의 대화나 만남을 위주로 하는 만남형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단기간, 즉 1일에 단발적으로 행해지는 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 10주 이상 진행되는 장기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역에 대한 측면이다. 단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프로그램은 주로 전공자나 전공을 하고자하는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과 교육프로그램이 비전공자나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비중이 크게 다루어졌다. 지역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져 거주자를 생각하기보다는 페스티발의 특수성에 따른 행사로서의 프로그램이라 판단된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측면이다. 무용은 몸을 움직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기위주의 활동이 주된 활동이었으나, 안무가와의 만남이나 포토존을 만들어 무대에서의 모습과 무대 밑에서의 모습을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예술의 형태가 무용이라도 무용과 다른 영역과의 융합 활동으로서의 프로그램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무용영역의 확대 측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현대무용이 가지는 모호성이라는 경계를 넘어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봄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관객의 무용공연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Ⅳ. 제언

본 연구는 현대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관객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안내서 등의 제한적인 문헌적 고찰에 그쳤기에 직접 참여한 관객들의 반응과 후기를 살펴보는 등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현대무용이 가지는 난해성을 예술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대인의 기본적인 안목을 키우고 이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관객참여형 무용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이지현, “무용작품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안무자들의 인식과 발전방향”,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30권, pp. 157-182, 2013
[2] 임규혁 외5인, “공연예술 관람객의 감성지능이 관람동기와 만족도, 스트레스해소에 미치는 영향-뮤지컬과 클래식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가학연구, 제8권, 2호, pp105-125, 2010
[3] www.kncdc.kr
[4] www.ipap.co.kr
[5] www.modafe.org